

민주당, 1위 후보 서운할 정도로 역동적 경선 치른다

경선 일정 예정대로
내달 11일 6명 압축 컷오프
9월 10일 최종 후보 선출
탈락 후보자 합동연회 촉각
경선률도 후보들간 신경전

대선후보 경선 일정	
2021년 더불어민주당	
6월 28~30일	예비후보 등록
7월 9~11일	예비경선 (여론조사 50%, 당원조사 50%)
7월 11일	6인 후보자 발표 (컷오프)
9월 5일	본경선
10일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 없을 경우) 결선투표
2022년	
2월 13~14일	후보자등록 신청
15일	선거운동 시작
23~28일	재외투표소 투표
3월 4~5일	사전투표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연기하는 대신, 당원·당론을 지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선 레이스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원·당규대로 대선후보 경선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는 '대선 180일 전'인 9월 10일까지 선출된다. 특히 예비후보자 중 상위 6인에게만 본경선 기회를 부여하는 컷오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컷오프 문턱을 넘지 못한 예비후보자들이 본선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본경선 과정에서도 지지율이 다소 낮은 후보들 간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대선 경선거획단 공동단장인 강훈식 의원이 "상대적으로 1위 하는 후보가 서운할 수도 있을 정도로 후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수용할 것"이라고 밝혀 경선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경선률에 따라 후보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경선 과정의 흥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지난 25일 이상민 위원장이 주재한 1차 회의에서 당내 대선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오는 28~30일 사흘간 받기로 의결했다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2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8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내달 9일부터 3일간 여론조사와 당원조사를 50대 50 비율로 하는 예비경선을 진행하고, 예비후보자 중 상위 6인에게만 본경선 기회를 부여하는 컷오프 결과를 11일 발표한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 후 컷오프 전까지 TV 토론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흥행몰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당내 대권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장관, 박용진·이광재·김두관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총 9명이다. 1차 관문은 컷오프다. 경선 룰에 따라 6명만 컷오프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민주당의 경선 일정은 윤곽을 드러내면서 경선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일부 후보진영에서는 전국을 돌며 경험하는 일종의 '경연 대회' 방식을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훈식 의원은 지난 25일 경선일정 확정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기 위한 역동성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언론에 더해 SNS와 유튜브 등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 참여 창구가 다양해지면서 과거와 달리 현재는 환경 자체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 발대식이 27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정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손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이나믹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 총리 2명에 현직 도지사 3명, 대선 의원과 전직 장관 등 후보군도 뿔뿔하고 그 후보들의 정책 비전이 뚜렷한 것도 흥행 요소다"면서 "경선 흥행도 해야 하고 당 혁신도 해야 한다. 혁신과 흥행, 두 가지가 기획단의 핵심 키워드"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치러진다. 이에 앞서 2월 13~14일 대선 후보 등록이 진행되며, 15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통령선거에 앞서 재외선거는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실시된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오는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록 신청은 내년 1월 8일까지 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언론의 무자비한 폭로에 견딜 수 있는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후보 필요하다”

정세균 광주 '균형사다리' 발대식
경선 결선투표·후보간 연대 시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7일 "언론의 무자비한 폭로에 견딜 수 있는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지 조직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도덕성만큼은 상위 1% 정치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갑등 분열 없이 하나로 뭉쳐야 승리할 수 있다"며 "어려울 때마다 당을 지켜 온 힘으로 당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찰력과 경험으로 불안감 아닌 안정감, 불신 아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불안한 선동이나 신뢰받는 안정이나, 누가 신뢰받는 정책으로 국민의 믿음을 얻어낼 수 있다, 누가 안정적인 유능함으로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전 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방송에 출연, "결선투표는 자연스럽게 연대를 하도록 돼 있는 제도"라며 향후 결선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전 총리는 "별써 연대하는 것은 너무 빠른 얘기다. 나중에 흑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지금 그런 걸 염두에 두거나 거론할 시점은 아니다"라

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 이광재 의원과 공동 정책 토론회를 한 것이 결선에서의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 전 총리는 "(본경선에 진출한) 여섯 사람이 경쟁하면 과반수 득표가 쉽지 않아 결선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며 "(결선 진출자) 두 사람 말고 나머지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든 편을 드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른바 'X파일' 논란에 대해서도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다고 "그런 게 돌아다니는 건 별로 상서로운 거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최종 대선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좋은 검사는 좋은 검사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좋은 검사가 정치를 잘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또 최초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도 했다.

윤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연이어 야권 주자로 거론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정치를 하려면 집권층이나 권력자를 비판하면 뜨는 게 있었다"며 "대표적인 분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니냐. 결국은 대통령이 되진 못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의 수용

부동산 의혹에 3개월만에 낙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온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김 비서관의 사퇴는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표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며 사의 표명 배경

을 설명했다. 김 비서관을 둘러싼 의혹은 최근 재산 공개에서 비롯됐다. 김 비서관은 총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땅지(盲地)'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투기 의혹이 일었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영끌 빚투' 논란에도 직면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6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신고했고, 이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 (65억5000만원 상당)를 사들이는 데 쓰이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를 두고 야당의 경질 요구가 잇따르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비판 여론은 확산했고, 결국 김 비서관의 사퇴로 이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면서도 "그와 관련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